

李陸史의 詩世界

교양과 이 병 문
전입장사

I. 서 론

한국사에 있어서 현대사 부분이 정리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과 충격을 주는 것처럼 한국문학사에 있어서도 신문학 이후 현대문학 부분이 일면으로 새로운 교훈과 충격을 주며 이에 따른 연구와 고찰을 통해서 새롭게 정리되어지고 있다. 문학은 한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거짓없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훈과 충격보다 더 큰 놀라움을 준다고 본다.

1900년대 초엽 이른바 개화시대의 문학인들에게는 개화니 계몽이니 들죽날죽 몇 곱이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만 문학수업시대에 들었던 다재다능한 지식인이었을 뿐이다. 그들은 역사도 공부하고 문학도 공부하고 민족계몽운동에도 참여하여 여러가지 분야에서 종횡무진으로 마치 자기자신들의 재주를 자랑하듯 하였다.

또한 그들은 해외유학을 나간다. 서구식 새로운 교육을 받는다. 새로운 문화의 물결에 접촉한다 하면서 뽐도 내었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이 그리고 시대와 사회가 함께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을 느낄 수가 없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경향만은 계속되었을 뿐, 일본식민지통치자의 구둑발에 짓밟힌 민족의 처절한 운명에 대해서는 노여워할 줄도 몰랐고 더구나 민족과 민족의 역사 앞에 사명의식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그후 1940년대를 전후해서는 문학인이 곧 지식인이고 이론가요 지도자였던 시대와의 결별로써 나타나며¹⁾, 이제는 애국지사요 독립투사가 문학인이고 지식인으로서 식민지시대의 현실상황에 대하여 고발하고 저항하며 몸과 마음으로 독립투쟁전선에 나섰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식민지정책에 의한 억압과 횡포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었던 사람과 민족독립운동에 대하여 사명감을 통감할 수 있었던 사람만이 가졌던 시대의식과 민족의식과 그리고 자아성찰 때문이었다.

이 시대의 문학인은 빼앗긴 국권을 다시 찾은 뒤에야, 짓밟힌 민족정신을 다시 일으킨 뒤에야만 문학이 있고 시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현실을 인식하기에 투철하였고 민족의 역경을 직시하기에 냉철하였기 때문에 과거시대와 같은 눈물과 한숨과 애수의 감상시가 아닌 민족의 저항시를 썼고 시대

¹⁾ 金治深, "植民地時代の文學", 植民地時代の文學研究, (서울: 깊은샘, 1980) p.24.

의 증언서를 썼으며 미래의 예언서를 쓸 수 있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워 이는 바람결에도 나는 피로와했다'던 윤 동주나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던 이육사의 저항하는 모습에서나,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던 윤 동주나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자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라오길 기다리나니'던 이육사의 예언적 자세에서 우리들은 1940년대를 전후하여서 날카로운 지성과 냉정한 이성과 용감한 투지를 만나게 되었다²⁾.

이 시대 무렵의 변절문학인 친일문학을 다시 연구하고 고찰하여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식민지시대 그 사회 속에서 불안과 실의에 빠진 가엾은 민족에게 희망과 미래를 약속해 준 애국시인, 민족시인, 순절시인을 연구하고 고찰하여야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이며, 식민지시대 문학사를 재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와같은 연구와 고찰은 당연한 요청이 아닐 수 없다.

비 한 방울도 내리잖은 곳으로 쫓기며 살던 민족의 모습과 민족의 감정과 그리고 민족의 신념을 작품으로는 물론 조국광복운동에 직접 참가하여 민족과 함께 굶주리고 피로와하고 투쟁하다가 마침내 옥사당했던 이육사의 생애와 그의 문학적 배경, 나아가서 그의 시작품의 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이육사의 생애

이육사(李陸史)는 1904년 갑진(甲辰) 음력 4월 4일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원촌리(원천리) 881번지 (慶尙北道安東郡陶山面遠村里(遠川里) 八八一番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진성후인 아은처사 이가호(眞城後人亞隱處士李家鎬)이시고, 어머니는 김해후인 범산허형(金海後人凡山許蘊)의 따님이시다. 형제로는 원기(源祺) 원록(源祿) 원유(源裕) 원조(源朝) 원창(源昌) 원홍(源洪-일찍죽음)의 6형제인데 육사는 그 둘째이다. 그리고 순흥 안용락(順興安庸洛)의 따님이신 안일양(安一陽)여사와 결혼하여 아들 동운(東胤-일찍죽음) 딸 옥비(沃非) 아들 동박(東博-일양자)를 두었다.

본명은 源龜 혹은 源祿이고 源三 또는 活이란 이름도 썼고, 아명은 英達이고 자는 台卿이며 호는 陸史이다. 그는 용모가 청수하고 기상이 굳고 품성이 강직하였다.

'陸史'란 호는 1927년 장진홍의사의 조선은행대구지점 폭파사건에 관계되었다는 피의자로 검거되어 복역 중의 죄수번호가 '64'이었는데, '64' '64'하고 부르던 것을 그 소리대로 쓴 것이다. [혹은 '264'번³⁾]이라고 하며, 혹은 그때 감방번호가 '264'호였으므로 육사(陸

²⁾ 文學思想社편, "陸史生鄉遠村을 찾아", 文學思想, 통권7호, (서울: 문학사상사, 1973) p.428.

³⁾ 홍기삼, "이육사의 저항활동", 나라사랑, 제16집, (서울: 외솔사, 1974) p.41.

史: 64)라고 불렀다⁴⁾하며, 혹은 ‘藝史’라고⁵⁾ 쓴 적도 있었다].

본관은 眞城으로 퇴계 이황의 14대손이고 문과급제하여 三司를 거쳐 형조참판에 오른 사은 이구운(仕隱李龜雲)의 6대손이다. 이 육사의 출생지 원촌은 퇴계의 손자 3형제 중에 맨 끝의 동암 이영도의 증손 원대처사 이구가 처음 살던 곳인데, 한 문중에서 문과급제자가 이효순(형조판서) 이구운(형조참판) 이만현(교리) 이만정(응교) 이만용(응교) 이만유(사간원사간)의 6명이요 진사가 5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내동리란 곳은 겨우 한 백여 호나 될락달락한 곳, 모두가 내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이 땅에는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닌 무서운 규모가 우리들을 키워주었습니다⁶⁾. 「年譜」는 그가 낙동강 상류 강마을인 원촌에서 나서 소년시절에 먼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나던 그 모습을 암시한 것이다. 이것은 개화기를 맞자 조국을 잃고 헤매던 당시의 청년들의 이상과 실의를 읊은 보편적인 상이기도 하였다⁷⁾.

「너는 돌다리북에 쫓았다」든
할머니 핀잔이 참이라고 하자

나는 진정 江 언덕 그 마을에
버려진 문바지였는지 몰라?

그러기에 열여덟 새봄은
버들피리 곡조에 부러보내고

첫사랑이 흘러간 港口의 밤
눈물섞어 마신술 피보다 달드라

공명이 마다곤들 언제 말이나했나?
바람에부처 돌아온 고장도 비고

서리밭고 걸어간 새벽길우에
肝일만 새하얗게 단풍이들이

거미줄단 발목에 걸린다해도
쇠사슬을 잡아맨듯 무거워졌다

눈우에 걸어가면 자욱이 지리라고
때로는 설택이며 파람도불지 「年譜」全文

1908년 육사는 6세때에 조부 치현공 이충직(痴軒公 李仲植)으로부터 소학을 비롯하여

4) 趙南翼, 韓國代表詩解說, (서울: 장학사, 1980) p. 189.

5) 李東英, “李陸史의 抗日運動과 生涯”, 曠野에서 부르리라, (서울: 文學世界社, 1981) p. 244.

6) 李陸史, “계절의 5행”, 曠野에서 부르리라, (서울: 文學世界社, 1981) p. 19.

7) 신석초, “이육사의 인물”, 나라사랑, 제16집, (서울: 의술사, 1974) p. 103.

한문을 배웠다 하며, 그의 詩作集에도 晚登東山, 酒暖興餘, 謹賀石庭先生六旬 등의 한시가 있는 바 남달처럼 떠들거나 고심하는 빛도 없이 조용히 구상하고 불러서 항상 신선한 식구가 좌중의 흥미를 돌구었다 한다. 육사의 조부인 치헌공은 경술국치를 당하여서 거느리고 살던 비부들을 풀어보낸 다음에 그 종문서를 불살라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벼슬을 거절하고 광복할 일을 도모했다 한다.

1915년에는 조부가 숙장이었던 普文義塾(혹은 寶文義塾⁸⁾)에 백형 원기를 따라 다니면서 한문과 견문을 넓혀었다 하는데 물론 나이로는 정규학생이 아니었다. 그후 1919년 향리 원촌을 떠나 녹전면 신평동 들판이로 이사하였고, 다시 이듬해 원기 원유와 함께 대구로 나왔는데 두인 원유(斗人源裕)와 운거 이 명룡(雲居李命龍)이 석재 서 병오(石齋徐丙五)에게 다닐 때 육사가 함께 다니며 그림공부에 관심을 두었다. 훗날 「依依可佩」⁹⁾ 「清香可賞」¹⁰⁾ 등의 난초그림이 있다.

1921년 18세때에 육사는 영천에 사는 순흥 안 용락의 따님 안 일양(安—陽)여사와 결혼하였고, 이듬해에 영천 하북면 백학학교(백학서원)에서 이 명선, 서 만일, 백 기만과 함께 공부하고 다시 대구 교남학교로 옮겼다. 다시 이듬해에 대구 남산동 662번지로 이사하였는데 이른 봄에 일본으로 건너가 약 1년여를 머물러 있다가 나왔고, 이 무렵의 일로 '일본 대학중퇴'란 기사가 있다.

1925년 9월에 육사는 원기 원유와 함께 독립운동집단인 正義府, 軍政署, 義烈團에 입단하여 활동하게 된다. 乙丑正月定基至北京 見國民黨正義部員南亨佑 大韓獨立黨軍政署代表裴炳鉉 義烈團員金昌淑 皆曰今我韓獨立 資金爲急(中略) 九月定基歸邱 與李源祿 李源祺 李源裕等結秘密社 運動其革命 於是亦入團 暗自活躍以俟其機...¹¹⁾에서도 입단한 무렵의 일면을 볼 수 있다.

義烈團은 1919년 11월 10일 만주 길림성 파호문 밖의 중국인 집에서 조직된 비밀단체¹²⁾. 한국독립운동사상 암살과 파괴 등 폭력을 유일한 항일투쟁수단으로 삼아 저항운동을 전개한 단체로서 이것을 능가할 단체가 없었다고 한다. 우리는 일본강도정치 곧 이족정치가 우리 조선민족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없애는 일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¹³⁾에서 의열단의 항일투쟁자세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들의 중요투쟁기록은 부산경찰서폭파사건 밀양경찰서폭파사건 총독부폭파사건 황옥경부사건, 종로경찰서폭파사건 니쥬우바시사건 동양척식회사폭파사건 등이 있다. 이듬해에 대구 조양회관(현재 원화여고교)에 나가 신문화강좌에 참가한 일이 있

⁸⁾ 金鍾海, "李陸史의 年譜", 曠野에서 부르리라, (서울: 文學世界社, 1981) p.304.

⁹⁾ 외솔사편, 나라사랑, 제16집 화보, (서울: 외솔사, 1974)

¹⁰⁾ 외솔사편, 나라사랑, 제16집, (서울: 외솔사, 1974) p.99.

¹¹⁾ 金鍾海, 前揭書, p.253 재인용.

¹²⁾ 申載洪, "殉國의 決死隊", 한국현대사, 5권, (서울: 신구문화사, 1974) p.87.

¹³⁾ 安秉直, 「申采浩」, 한국근대사상가, 선집, 2, (서울: 한길사, 1979) p.188.

으며 이 정기와 함께 북경에 들어갔다.

1927년 북경에서 육사는 귀국하였다. 이해 가을 장 진홍(張鎭弘)의사의 조선은행대구지점폭파사건의 피의자로 원기 원록 원유 원조 4형제가 검거되었다가 원조만 먼저 나오고 나머지 3형제는 2년 7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나왔다. 이때에 붙여준 죄수번호가 '64'이고 그래서 아호가 '陸史'가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조서에서는 지휘자가 원기이고 폭탄수입자가 원록이고 폭탄상자에 글씨를 기록한 자가 원유라고 조작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들 형제와 이 사건은 전연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

1929년 장 진홍의사의 피검으로 육사 3형제가 풀려나와 조선일보 대구지사를 경영하며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11월에 광주학생독립운동사건이 일어나자 예비검속되어 6개월간씩이나 옥고를 치르었다. 이듬해 11월에도 대구의 격문사건에 연계되어 원유와 함께 대구경찰서에 피검되었다가 원유는 2개월여에 병보석으로 나오고 육사는 6개월만에 나왔다.

1931년 육사는 외숙 일헌 허 규의 독립군자금모금에 관계되어 만주에 들어갔다가 군관학교 학생모집을 위해 귀국하였고 다시 조 재만 원조 들을 데리고 북경으로 들어가다가 도중에서 만주사변이 터지자 육사는 봉천에 있는 김 두봉에게로 가고 나머지는 3개월만에 귀국하고 말았다. 이듬해 6월에 양 행불(楊杏佛)의 호상소에서 노 신(魯迅)을 만난 일이 있고 10월 22일 조선군관학교 국민정부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정치조에 입교하였다.

1933년 4월 22일에 조선군관학교 국민정부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을 졸업하고 10월 14일 상해를 거쳐 신의주로 하여 귀국하였다. 이해에 <신조선>지에 처녀작인 시 「黃昏」을 발표하면서 시작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듬해 5월 25일 서울에서 일본 헌병에 의한 군관학교 출신자 일제검거때 함께 피검되었는데, 이때 고문이 어찌나 혹독하였는지 피옷을 받아냈다 한다. 신 채호는 강도 일본정치 밑에서 우리 민족이 당한 고문의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음모사건>의 명칭하에 감옥에 구류되어, 주리를 틀고 목에 칼을 썬우고 발에 쇠사슬을 채우기, 단근질·채찍질·전기질·바늘로 손톱밀과 발톱밀을 찌시는, 수족을 달아매는, 콧구멍에 물붓는, 생식기에 심지를 박는 모든 악형, 곧 야만전제국의 형률사전에도 없는 갖은 악형을 다 당하고 죽거나, 요행히 살아 옥문에서 나온대야 평생불구의 폐질자가 될 뿐이다¹⁴⁾.

매운 季節의 채죽에 갈겨
마춤내 北方으로 뺨살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高原
서리빨 칼날진 그 우에서다. 「絶頂」前文

1935년 육사는 조선청년동맹간부로 활동하고 말외숙 아정 허 민(亞汀許璲), 둘째외숙 일창 허 준(一蒼許竣) 그리고 일헌 허 규(一軒許珪) 등이 경영하던 한약방(일창한약방)은

¹⁴⁾ 安秉直, 上揭書, p. 188.

만주 망명가들에게는 독립운동연락처였다.

한편 <개벽> 1월호에 「위기에 입한 중국정국의 전망」을, 3월호에 「중국청방비사소고」를 발표하면서, 「춘수삼계」 「실계」등 시작품을 발표하고, 이즈음에 북경대학에 적을 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듬해에 만주에서 귀국하자 곧 피검되어 서울형무소에 구류되었다. 중국 작가인 노 신을 애도하는 「노신추도문」을 쓰고 또 노 신의 소설 「고향」을 번역하였다. 이해 11월 18일에 모부인 회갑연을 대구에서 모셨는데, 육사는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하며 중의일보 조광사 인문사와 관계하고 있었다.

1938년 음력 11월 23일 부친 아은공의 회갑연을 모시고, 신 석초, 최 용, 이 명룡과 함께 경주여행으로 삼불암에서 요양하였다.

1941년 음력 4월 26일 부친께서 별세하셨고 육사는 9월에 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해에 딸 옥비를 낳다. 이듬해 2월에 퇴원하여 경주 안강 기계리의 해산 이 영우덕과 미아리 이·태성덕에서 요양하였다. 음력 4월 29일 모부인 별세와 음력 7월 13일 백형 원기공의 별세로 거듭 겹친 상사에 슬픔에 잠겼다. 육사의 문학활동도 <조광지> 1월호에 「계절의 표정」이 보일 뿐이고, 「광야」 「편복」이 이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되었다.

1943년 큰집 빈소를 모시고 고향 원촌으로 환고하게 되자, 원록 원유는 명륜동에 원조는 혜화동에 원창은 인천 송현동에 각거하였다. 그뒤 육사는 또 북경으로 들어갔다가 모부인과 백형 소상에 참례하러 음력 4월에 귀국하여서 원촌까지 내려갔다. 7월에 서울로 올라와서 곧 동대문경찰서 형사와 헌병대에 의하여 피검된 채 다시 북경으로 압송되었다.

이듬해인 1944년 갑신(甲申) 양력 1월 16일 새벽 5시에 북경 감옥에서 운명하였다. 1월 19일에 육사의 부음을 듣고 서울집안에서는 호상소를 성북정 122의 11에 모시고 애도하였다. 그때 뜻을 같이 한 죽친이었던 이 병희에게 유해가 인도되었는데, 부음을 듣고 원창과 몇 사람이 유해를 모시러 북경에 갔을 때에는 이미 북경주재 일본영사관에 의해 화장이 되어 한 줌의 재가 작은 상자에 담겨 있을 뿐이었다. 일본 관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제되었고 귀국하여 미아리공동묘지에 장사지낼 때도 마찬가지였다.

1946년 1월 16일 인천 송현동 원창집에서 대상을 모시고, 원창의 세제아들 동박으로 하여금 후사를 잇게 하였다. 그후 1960년 봄에 유해를 고향 원촌으로 모셨다.

1968년 5월 5일 어린이날 낙동강 가에 「육사시비」가 제막되었으며 1974년 9월 23일 의술사에서 <나라사랑> 제 16집을 “육사 이 원록선생 특집호”로 낸 바 있다.

2. 이 육사의 문학배경

모든 사람들은 자기자신들로부터 기존적 자유와 생존적 권리를 빼앗아 가고 또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짓밟으려 할 때, 특히 예술가는 사람의 기존적 자유와 생존적 권리는 물론 예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현실참여」를 해왔던 것이다. 폴란드의 시인이 그리하였고 이탈리아의 시인이 그리하였으며, 과거 일본식민지시대의 우리 시인이 그리하였다.

과거 일본식민지시대의 우리의 처지를 돌이켜 보면, 민족적 비애와 실의 속에서 그것을 정면으로 수용 또는 대결하려 하기보다는 그것들로부터 체념 내지 도피하려 하면서, 시 본연의 순수미를 시문학적 태도로는 더 압축되고 더 가열해진 시대적 상황과 민족적 현실을 감당해 낼 시문학적 능력과 방향을 찾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민족적 현실을 당해서 저항과 몸부림으로 이 절박한 순간에 섰던 몇몇 시인들이 있었다. 이 수난을 민족과 민족문학과 민족시를 위해 몸으로 당하고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육사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바쳐 싸우는 일이야말로 아름답고 깨끗한 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다¹⁵⁾.

육사에게는 시보다도 문학보다도 조국이 더 컸었다. 조국을 찾은 뒤에야 시도 문학도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독립운동전선으로 뛰쳐나가서 만주의 새벽길을 쏘다니기에 그처럼 지치기도 했던 것이다¹⁶⁾. 육사에게는 남다른 시대의식과 현실의식 그리고 식민지시대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그 사명을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실천력도 있었다.

지금 눈 나리고
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千古의 뒤에
白馬타고 오는 超人이 있어
이 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광야」 끝부분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의 시대를 임의 침묵하는 시대로 파악하고 언젠가는 임이 다시 오리라는 기다림의 노래를 부른 데에 1920년대의 시인 만해의 위대성이 있다면, 거의 민족 전체가 절망과 실의에 잠겨 있던 눈덮인 1930년대의 광야에서 인간의 자유와 조국해방의 노래를 불렀다는 데에 이 육사의 뛰어남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1930년대말과 1940년대초 민족적 지식과 문인들 대다수가 변절하여 친일분자로 되어서 일본제국주의 전시체제를 찬양하거나 또는 이에 순응하여 민족의 고통과 궁핍과 실의와 좌절을 외면하고 돌아설 때, 이 육사와 운동주 이들은 민족적 양심과 정의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다가 육사를 당한 일본제국주의 말기의 민족시인이다. 이들은 민족과 민족역사에 대하여 확실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념 위에 그들이 해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였던 애국투사요 애국시인이다.

역사가 최 창규교수의 이 육사에 대한 소개를 들어본다¹⁷⁾.

광복의 가능성을 거의 잃은 대부분의 지성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숨으며 스스로를 포기하

¹⁵⁾ 具仲書, "行動과 美의 비밀", 민족문학의 길, (서울: 새발자, 1979) p.204.

¹⁶⁾ 이은상, "육사소전", 나라사랑 제16집, (서울: 외솔사, 1974) p.108 재인용

¹⁷⁾ 최창규, "이육사시대의 사상사적 좌표", 나라사랑, 제16집, (서울: 외솔사, 1974) p.24.

였고, 그리하여 일본제국주의가 우리의 영원한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한 일부 지성인들은 아주 현실에 뛰어들어 저 부끄러운 견함으로 몸을 구부리기도 하였다. 민족의 지성마저도 어려운 제 나라 역사를 포기하게 되며, 저 1930년대 우리 민족사에는 과연 무엇이 있어 그 마지막 역사의 명맥을 지켰을까 우리는 바로 여기서 육사 이 원록선생에 의해 상징되는 1930년대 이 겨레 지성의 민족사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육사 그는 광복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남은 지성이기보다는 그 가능성에 관계없이 의연히 역사를 꿰뚫어 본 이 겨레의 활력이었던 것이다.

시대적으로 불의와 도둑질이 지상을 휩쓸 때를 당하여 양심이 깨끗한 지성인, 시인이면 보고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육사는 1944년 북경 감옥에서 殉義한 신시사상 대표적인 지절시인의 한 사람이다¹⁸⁾.

3. 이 육사의 詩世界

한 시대를 살다간 사람에게는 그가 살다간 발자취가 깊게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가 그 시대를 위해 훌륭한 이바지를 하였거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었거나 그리하였을 것이거나 또는 그가 그 시대를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밝은 빛을 갈망하며 몸부림을 쳤거나, 그가 그 시대를 화려한 사치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 뒷면에 묻혀 욕되게 살았거나 그리하였을 것이다. 그가 시인이란 특히 그의 시에 나타난 분위기는 바로 그 자신의 시대의식과 결부된다는 이 짧은 한 마디에서 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시대 통치밑에서 몸부림치는 가난과 굴욕 속에서 우리 민족의 부르짖음과 아픔을 누가 대변해 주었던가를 기억하게 하고 있다. 그 대변자는 곧 만해요 상화요 육사요 그리고 윤 동주다.

만해와 상화가 1920년대의 일본식민지시대의 분위기와 그 시대의식을 아픔과 괴로움으로 부르짖었다면, 육사와 동주는 1940년대의 일본식민지시대의 분위기와 그 시대의식을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고발과 증언으로 부르짖었던 것이다. 곧 이것은 민족의 양심과 정의를 끝까지 지키다가 그것이 죄가 되어 육사당한 육사와 동주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육사 그는 동양적 한국적 전통의식과 선비정신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시로 읊었던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그는 어느 때는 실의와 좌절에 묻혀서, 어느 때는 신념과 소망 속에서, 민족과 민족역사를 두고 민족의식과 시대의식으로 분명하게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고 떠났다.

(1) 증언의 시

1940년대를 전후해서 극악무도한 일본제국주의 신봉자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단절시키려 하였고 우리 사회의 모든 언론을 틀어 막으려 하였으며 심지어는 성씨와 이름까지를 빼앗아 가려 하였다. 이러한 숨막히는 역사의 고비에서 민족의 지성인·지식인은 일본제국주의의 만행과 횡포를 고발하고 또 역사 위에 증언하려 하였어야 옳았을 텐데, 다

¹⁸⁾ 정한모, "육사시의 특질과 시사적의의", 나라사랑, 제16집, (서울: 외출사, 1974) p.47.

만 일신의 부귀영화와 안일무사 앞에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존망은 무참히 묵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 교약한 시대상황에 굽히거나 꺾이지 않았던 이 육사, 그가 그 시대를 살면서 고발한 의침과 증언한 사실을 밝히려 한다.

하늘이 높기도 하다
고무 풍선 같은 첫겨울 달을
누구의 입김으로 불어 올렸는지?
그도 반넘어 서쪽에 기울어졌다.

행랑 뒷골목 호젓한 상술집엔
팔려 온 冷害地處女를 둘러싸고
大學生의 지질숙한 눈초리가
思想善導의 염탄꾼 밑에 떨고 있다.

라디오의 修養講話가 끝이 났는지?
마—장 俱樂部 문간은 하품을 치고
텔딩 들담에 꿈을 그리는 거지새끼만
이 都市의 良心을 지키나 보다

바람은 밤을 집어삼키고
아득한 까스 속을 홀려서가니
거리의 주인공인 해태의 눈깔은
언제나 말장게 푸르러 오노 「失題」全文

이 시는 1935년 12월 초야에 쓴 것이다. 이 시의 전체에 깔려있는 분위기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둡게 나타나 있다.

‘서쪽’ ‘뒷골목’ ‘상술집’ ‘팔려온’ ‘냉해지처녀’ ‘지질숙한’ ‘사상선도’ ‘염탄꾼’ ‘수양강화’ ‘거지새끼’ ‘밤’ 이 하나하나의 말들은 그 무렵 시대분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일본제국주의가 전쟁준비에 한창 몰두해서 이른바 전시체제돌입 총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세아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휩싸였을 때이다.

일본제국주의 침략자에 의하여 수탈당한 조국은 궁핍한 시대의 현실¹⁹⁾, 곧 가난한 삶에 허덕이고 있었고, 저들의 음흉하고 날카로운 눈치 속에서 감시받고 있듯 마치 차거운 겨울과 같은 상황이었다. 우리의 처지는 ‘팔려온 냉해지처녀’로서 저들의 처지는 ‘사상선도의 염탄꾼’으로서 잘 나타나 있다.

이 시대에 산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민족의 역사 앞 증언대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민족의 지성인에게는 ‘양심’을 지키는데 어떠한 시대적 타협이나 부끄러운 전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끝내는 민족과

¹⁹⁾ 金時泰, “民族의 비전”, 현대시와 전통, (서울: 성문자, 1978) p.252.

민족의 역사 앞에 그 시대를 살아갔다는 ‘양심’의 외침 한 마디나 증언의 고백 한 마디라도 남기어야만 하였다.

조국을 빼앗긴 민족에게 ‘대학생’은 희망이요 별이었는데, 오히려 이 대학생의 삶은 내 선일체니 뭐니 떠들던 사상선도의 염탐꾼 눈초리 밑에서 멀고 지내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벨딩 돌담에 꿈을 그리는 거지새끼만 이 도시의 양심을 지키나 보다’에서처럼 모든 것을 수탈당한 가난한 자리에서 거지새끼가 되어 숨막히는 도시의 양심을 무기력하게 불안 속에서 방관하는 자가 되어 버렸다.

이 육사는 식민지시대의 저들의 허위와 횡포와 강도질을 ‘한국의 선비정신’으로 ‘민족의 양심’으로 지켜보고 고발하면서 시대의 증인이 되어 이렇게 훌륭한 증언의 시를 남긴 것이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조차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죽죽한 漁村보담 어설피고
삶의 퇴짜만 오래묵은 布帆처럼 달아내었다.

남들은 기뻐다는 짧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西海를 密航하는 「짱크」와 같애
소금에 절고 潮水에 부뜨려 올랐다.

항상 흐렸한밤 暗礁를 벗어나면 颶風과 싸워가고
傳說에 읽어본 珊瑚島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南十字星이 비쳐주지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질래
그리운 地平線을 한숨에 기어오르면
시궁치는 熱帶植物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나
다 삭아빠즌 소리접질에 나는 붙어왔다
머-나 港口的 路程에 흘러간 生活을 드러다보며 「路程記」全文

이 시에서도 ‘남들은 기뻐다는 짧은 날이었건만’은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질래’ 밤마다 꿈을 서해를 밀항해야 하는 쫓기는 사람, 지친 사람의 불안과 초조를 나타내고 있다.

5천년 민족의 역사와 3천리 금수강산을 빼앗긴 채 잃어버리고 또 다른 고향으로 쫓겨가는 민족의 수난과 민족의 체험이 이 시의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꿈 ‘깨어진 배조차’ ‘밀항하는 짱크’ ‘태풍과 싸움’ ‘남십자성이 비쳐주지도 않음’과 같다.

「연보」에서의 ‘공명이 마다곤들 언제 말이나 했나 바람에 부쳐 돌아온 고장도 비고… 쇠사슬을 잡아맨듯 무거워졌다’에서나 「蝸蟻」에서의 ‘光明을 배반한 아득한 洞窟에서, 다 썩

은 들보라 문허진 城牆 위 너 홀로 도라다니는, 가엾은 박취여! 어둠의 王者여'에서도 일본식민지시대의 쓰라림과 恨스러운 현실상황은 '洞窟'로 亡國民은 '박취'로 나타냄과 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어둡고 불안한 식민지시대에서도 산호도와 남십자성을 갈망함은 오히려 포기할 수 없는 조국과 민족에의 집념을 확인하고 그것을 시의 내면적인 의식으로 굳혀 놓는다²⁰⁾. 역사 의식과 시대 의식을 가진 사람의 체험은 곧 자아성찰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 무서운 시대 상황을 고발하면서 그리고 그 시대를 살다갔다는 증인이 되어 증언의 시를 남기게 된다. 이것은 시인의 사명이요 지식인의 신념이다.

洞房을 차자드는 新婦의 발자취같이
조심스리 거터오는 고이한 소리!
海潮의 소리는 베모진 내 들창을 열다.
이밤에 나를 부르느니 엄스런만?

남생이 등 같이 외로운 이 섬 밤을
짜고 오는 소리! 고이한 侵略者여!
내 寶庫을, 門을 호드난 건 그 누군고?
領主인 나의 한 마디 허락도 없이

「코-가사스」 平原을 달리는 말굽 소리보다
한층 요란한 소리! 고이한 略奪者여!
내 情熱 밖에 너들에게 팻길게 무엇이로
가난한 귀양살이 손님은 파려하다.

을 때는 왜 그리 호기롭게 올라 와서
너들의 숨결이 密輸者 같이 험데느냐
오- 그것은 나에게 呼訴하는 말 못할 울분인가?
내 古城엔 밤이 무겁게 집혀가는데 「海潮詞」全文

古城의 領主 마음에는 洞房을 차자드는 新婦의 情熱과 코가사스 平原을 달리는 말굽소리에서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소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侵略者로, 略奪者로, 密輸者로 둔갑한 일본제국주의 그리고 일본식민주주의의 변모를 보고 있다.

저들은 19세기 말엽부터 이미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해왔고 갖은 협박을 자행하여 오면서 끝내는 외교권을 빼앗아 가고, 다시 1910년에는 국권을 짓밟았던 侵略者가 되었다.

그리고, 저들은 식민주의 노예가 되어 동양세계를 어둡고 답답한 암흑시대 불안시대로 휩쓸어 넣고, 저들의 침략과 약탈을 뻔뻔스럽게 합리화시키고자 동양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방면에서 오도했던 횡포자요 약탈자가 되었다. 일본식민지시대 30여년 동안 아세아의 공존공영을 내세웠던 허울좋은 略奪者가 되었다. 우리 민족은 딸각발이 등살

²⁰⁾ 曹秉春, "이원륙과 윤동주의 저항정신", 한국현대시사, (서울: 집문당, 1980) p.279.

에 발디딜 땅이 없이 산으로 물로 서간도로 북간도로, 시베리아의 황야로 흘러가 배고픈 귀신이 아니면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는 귀신이 될 뿐이다²¹⁾란 하소연을 듣게 되었다.

이 시대무렵 육사의 애국애족의 넓은 「교목」에서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고, 「자야곡」에서 '바람 불고 눈보래 치잖으면 못살리랴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소리 숨막힐 마음속에 어데 강물이 흐르느뇨'라고 침략자·약탈자·밀수자가 된 저들에게 피맺혀 외치고 있다.

피맺힌 이 현실상황을 이렇게 역설로 고발하면서 민족과 역사 앞에 증인이 되었으며 또 시로 증언해 주고 있다.

(2) 예언의 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끊기려는 순간의 이 막바지에 서서, 한 평생 삶을 바쳐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우며 순절한 이 육사, 그는 그렇게 많은 문학인 시인들의 변절과 배신 속에서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이 언제 이루어지리라는 확실한 기약도 없던 그 시대를 어떻게 살고 갔을까.

과거 일본식민지시대 동안, 우리의 많은 문학인 시인들은 일본식민지문화정책이 좋아서 맹목적으로 편승했다기보다는 그러한 이론적 발전이나 성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때그때 시대적 흐름에 추종했다든가 더러는 문학이 정치적 이념의 도구로 전락한 데서 온 것이라고 물려서서 양보한 사람도 많다. 그러나 식민지라는 역사에 대한 정당한 아픔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문학 지식인들의 변절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²²⁾는 것이 옳다.

순절한 시인 이 육사가 '역사에 대한 정당한 아픔'을 느꼈던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이 육사는 예술이 정치의 노예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었던 시인이며 조국과 민족이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술을 희생하고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투쟁과 혁명의 빛나는 대열에 뛰어 들 수 있었던 용맹한 투사였다²³⁾는 것이요 그리고 육사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길을 가장 깊게 지배했던 것은 구시대의 선비정신이었던²⁴⁾고 본다.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했던 일본식민지시대 속에서 이 육사가 조국과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고 또한 광복과 해방을 그토록 갈망하면서 언젠가 이루어지리라고 예언하였던 시작품을 살펴 보기로 한다.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개의 별을 十二星座 그 듯한 별을 엮거나 노래하겠네

²¹⁾ 安乘直, 前掲書, p.187.

²²⁾ 金治洙, 前掲論文, p.29.

²³⁾ 홍기삼, 前掲論文, p.44.

²⁴⁾ 金鍾哲, "陸史詩의 限界", 현대문제평론 23선, 유종호편, (서울: 한진출판사, 1979) p.102.

꼭 한개의 별! 아침 날때 보고 저녁 들때도 보는 별
우리들과 아—주 親하고 그중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
아름다운未來를 꾸며볼 東方의 큰 별을 가지자.

한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개의 地球를 갖는 것
아롱진 서름 밖에 잃을 것도 없는 낯은 이따에서
한개의 새로운 地球를 차지할 오는 날의 깃븐 노래를
목안에 피스때를 울νε가며 마음껏 불너 보자

처녀의 눈동자를 닮기며 도라가는 軍需夜業의 젊은 동무들
푸른 새를 그리는 고달픈 沙漠의 行商隊도 마음을 축여라
火因에 들을 좁는 百姓들도 沃野千里를 차지하자

다 같이 제멋에 알맞는 豐穰한 地球의 主宰者로
임자 없는 한개의 별을 가질 노래를 부르자

한개의 별 한개의 地球 단단히 다지진 그때 우에
모든 生産의 씨를 우리의 손으로 휘뿌려 보자
嬰粟처럼 찬란한 열매를 거두는 饗宴엔
禮儀에 끄림없는 半醉의 노래라도 불너 보자

렘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神이란 항상 거룩합시니
새 별을 차지가는 移民들의 그 틈엔 안 끼여 갈테니
새로운 地球엔 단죄없는 노래를 眞珠처럼 훑치자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 다만 한개의 별일당정
한개 또 한개의 十二星座 모든 별을 노래하자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全文

이 시에서 이 육사가 노래부르는 ‘별’은 조국의 어둡고 음흉스러운 현실상황과 민족의 실의와 패배에 빠진 좌절감을 이제는 다시 밝고 명랑한 조국의 현실상황과 환희와 기쁨에 넘치는 승리감을 밝게 비칠 민족의 이상이요 희망이다.

이 ‘별’은 새로운 조국과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갈구하는 표상이다²⁵⁾. 그리고, 조국과 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볼 ‘별’이고 沃野千里를 차지할 ‘별’이다. ‘아롱진 서름 밖에 잃을 것도 없는 낯은 이따에서’ 살던 우리가 광복된 조국과 해방된 민족을 ‘목안에 피스때를 울νε가며 마음껏 불너 보자’는 것은 마치 ‘지금 눈 나리고 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다시 千古의 위에 白馬타고 오는 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처럼 확실한 신념에서 超人意志에서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였던 것이다. ‘嬰粟처럼 찬란한 열매는 거두는 饗宴엔 禮儀에 끄림없는 半醉의 노래라도 부르자’는 것도 마치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처럼 광복의 환희와 해방의 감격이 꼭 오고야 말리라는 우리의 미래를 예

²⁵⁾ 정한모, 前揭論文, p.68.

언한 시이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방울 나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갱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北쪽 쓴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 멍아리가 움자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라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바리지 못할 約束이여

한 바다북판 용솨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城에는
나비처럼 醉하는 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꽃」全文

이 시는 우선 일본식민지시대가 주는 불안과실의와 공포 때문에 식민지시대에 살던 문학인 시인들이 빠져 들기 쉬웠던 애상감이나 자학감이 없어서 좋은 시다. '꽃'은 개인생명의 탄생이며 동시에 우주생명의 비밀이다. '꽃'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이며 생존적 권리이다.

'비 한방울 나리잖는 그때, 또는 北쪽 쓴드라 눈속'에 대한 '꽃은 빨갱게 피지 않는가, 또는 꽃멍아리가 움자거려'와의 관계는 불안한 식민지시대와 그 사회에 대한 정당하고 확고한 시대인식 사회인식에서 절망과 암흑의 극치가 순식간에 희망의 눈부신 비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²⁶⁾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본다.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의 날이 언제 오리라는 정치적 사회적 예측도 허락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변절한 문학인이 많았던 그 시대 무렵,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하면서, 다시 '눈속 깊이 꽃멍아리가 움자거려'라고 민족의 소망을 간절하게 바라며 꼭 오리라고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민족사의 사필귀정을 확신하는 애국지사요 독립투사만의 언행일치를 보여 준 것이다.

총칼로 빼앗은 자가 다시 총칼로 망한다는 것을 망각한 소시민적 문학인들에게는 불가능의 세계였지만, 시대와 민족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광야의 초인만이 갖은 예언의 세계다. 그리하여 이 육자는 예언의 시인으로 예언의 시를 남긴 것이다.

내 고장 七月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²⁶⁾ 金榮茂, "李陸史論", 창작과 비평, 통권36호 여름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5) p.199.

이 마을 전설이 주절이주절이 열리고
먼데 하늘에 꿈 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靑袍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면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도시 수건을 마련해두렴 「靑葡萄」全文

그 동안 고향을 잃고 쫓기는 마음의 아픔이기 때문에 '수만호 빛이래야 할 내 고향이언 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러라'던 실랑감과 '매운 季節의 체죽에 갈겨 마춤내 北方으로 휩쓸려오다'던 좌절감과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겨 디딜곳조 차 없다'던 망국한에 넘치는 현실상황과 현실의식의 저항도 있었고 고발도 있었지만, 이 시에서는 일본식민지시대의 빈궁과 불안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시대현실을 개탄하거나 매도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상상적인 미래현실에 접근²⁷⁾하고 있다. 너무나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시다²⁸⁾.

이 시로 말미암아 이 육사는 '청포도의 시인'이 되었고, '청포도의 시인'은 내 고향의 아름다움과 내 고향의 순수함과 내 고향에의 소망을 티없이 맑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나타 내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가장 잘 그의 지사적인 회구와 無邪한 성격과 티끌없는 명량성 등이 표출되어 있는 것이다²⁹⁾고 찬양하고 있다. 오늘날 이 「청포도」만큼 널리 애송 되어 온 서정시도 그렇게 흔치는 않다. 그리고, '내 고향'에 대한 향수는 곧 민족의 향수이다³⁰⁾.

더러는, '내가 바라는 손님'을 '고달픈 몸으로 푸른 도복을 입은 손님'이라 하여서 '失意의 浪客'³¹⁾이라고 하였지만,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였기 때문에 '고달픈 몸'으로 찾아오는 사람이고, 고통과 절망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청포를 입은 희망의 사자로 오는 것³²⁾이라 하였다.

청포를 입고 찾아올 손님은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 볼 동방의 큰 한 개의 별을 노래부를

²⁷⁾ 金時泰, 前揭書, p.257.

²⁸⁾ 黃憲植, "暗黒期の 默示文學", 창작과 비평, 통권38호 겨울호, (서울: 창작과비평사, 1975) p.209.

²⁹⁾ 신석초, 前揭論文, p.102.

³⁰⁾ 朴斗鏞, 한국현대시론, (서울: 一潮閣, 1973) p.113.

³¹⁾ 具仲書, 前揭論文, p.206.

³²⁾ 金榮茂, 前揭論文, p.203.

손님이요, 가난한 노래의 씨를 이 광야에서 묵농아 부를 白馬타고 올 초인이다. 이 초인은 고향을 쫓겨 난 사람에게, 조국을 수탈당한 사람에게, 고향과 조국을 다시 찾게 될 미래를 약속해 준 손님이요, 또 희망과 감격을 약속하고 예언해 준 손님이다. 이에 이 육사의 시정신이 식민지시대의 궤결에 맞서 획득한 자기확인이 참담게 밝혀진다³³⁾.

이 육사는 민족과 조국에게 밝은 미래가 온다고 예언자의 위치에서 예언의 시를 남긴 것이다.

III. 결 론

이상에서 이 육사의 생애와 그의 문학배경과 그리고 그의 시작품의 세계를 고찰하여 왔다.

이 육사는 1904년 (음력) 4월 4일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원촌리 881번지에서 태어나서 1944년 (양력) 1월 16일 중국 북경 감옥에서 죽었다. 이 육사는 우리의 기억에서 잊힐 뻔 하였다가 1968년 5월 5일 그의 고향 낙동강 가에 「육사시비」 하나를 남기고 갔다.

이 육사는 한 평생을 '쫓기는 마음 지친 몸으로' 타향에서 살았다. 그는 민족적 건통과 가문의 교훈 속에서 몸과 마음에 익힌 '선비정신'으로 살았으며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였던 민족시인이었고 독립투사이었다. 마침내 그는 민족과 시대의 현실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일본제국주의에게 수많은 검거와 고문을 당하였다. 그는 민족과 국가를 꼭 지키겠다는 충성과 사랑으로 살았으며, 일본제국주의를 침략자·약탈자·밀수자라고 폭로하며 살았다.

이러한 이 육사의 생애와 그의 문학배경을 통하여 이루어진 시작품의 세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육사의 시는 현실상황과 시대의식에서 온 증인적 내용이 강하게 나타난 증언시이고 식민지시대를 고발하고 대항한 증인적 내용이 또한 강하게 나타난 증언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육사의 시는 민족의 생활과 고통을 달래주는 예언적 내용이 강하게 나타난 예언시이고 민족과 조국의 미래와 소망을 약속해 주는 예언적 내용이 또한 강하게 나타난 예언시이다.

이 육사는 '선비정신' 하나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본식민지시대를 대표할 민족시인이 되었으며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한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이 육사가 한국 현대문학사 부분에 세워 준 이정표, 이것은 아주 값있고 귀중한 민족문학으로서 자랑이고 또한 민족문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 글에 인용한 시들은 <나라사랑> 제16집을 본으로 삼았음)

³³⁾ 金興圭, 文學과 歷史的 人間, (서울: 창비사, 1980) p.74.

參 考 文 獻

1. 金時泰, 현대시와 전통, 서울: 성문자, (1978)
2. 金鍾海, 李陸史 曠野에서 부르리라, 서울: 文學世界社, (1981)
3. 金興圭, 文學과 歷史의人間,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0)
4. 朴斗鎭, 한국현대시론, 서울: 一潮閣, (1973)
5. 安秉直, 申采浩, 서울: 한길사, (1979)
6. 趙南翼, 韓國代表詩解說, 서울: 장학사, (1980)
7. 曹秉春, 한국현대시사, 서울: 집문당, (1980)
8. 具仲書, "行動과 美의 비밀", 민족문학의 길, 서울: 세발사, (1979)
9. 金榮茂, "李陸史論", 창작과 비평, 통권36호, 서울: 창비사, (1975)
10. 金鍾哲, "陸史詩의 限界", 현대문예평론23선, 유중호편, 서울: 한진출판사, (1979)
11. 金治洙, "植民地時代의 文學", 植民地時代의 文學研究, 서울: 깊은샘, (1980)
12. 이동영, "李陸史의 抗日運動과 生涯", 李陸史 曠野에서 부르리라, 서울: 文學世界社, (1981)
13. 이육사, "계절의 5행", 李陸史 曠野에서 부르리라, 서울: 文學世界社, (1981)
14. 신석초, "이육사의 인물", 나라사랑, 제16집, 서울: 외솔사, (1974)
15. 申載洪, "殉國의 決死隊", 한국현대사, 5권, 서울: 신구문화사, (1974)
16. 정한도, "육사시의 특징과 시사적 의의", 나라사랑, 제16집, 서울: 외솔사, (1974)
17. 최창규, "이 육사시대의 사상사적 좌표", 나라사랑, 제16집, 서울: 외솔사, (1974)
18. 홍기삼, "이 육사의 저항운동", 나라사랑, 제16집, 서울: 외솔사, (1974)
19. 黃憲植, "暗黑期の 默示文學", 창작과 비평, 통권38호 겨울호, (1975)

A Study on Poet Lee Yuk-Sa

Byeong-Moon Lee

Dept. of liberal arts

G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As stated above, the author dealt with the life of Lee Yuk-Sa and his literary background, and besides his poetic world

He was born at 881, Weon-Chon Ri, Do-San Myeon, An-Dong Goon, Kyeong-Buk in Apr. 4, 1904 by the lunar calendar and breathed his last in prison in Buk-Gyeong, China in Jan. 16, 1944(by the solar calendar).

His name has nearly slipped from our memory, but a monument to the memory of Lee Yuk-Sa remains at the side of Nak-Dong river in his birthplace. It was erected in May 5, 1968.

He lived away from his home all his life with the mind of the pursued and the body of the tired. He lived in the spirit of a classical scholar learned from the national traditions and the family precepts. And he was a national poet and a fighter for national independence against imperialist Japan. He complained against what was the racial anguish and prophesied the future of a nation.

At last he was arrested and tortured by imperialist Japan many times, because he judged fairly the real conditions. He lived with his true heart and love to defend the country and the race, proclaiming imperialist Japan to be an invader, a plunderer, and a smuggler.

There are two ways of poetic world realized through his life and literary background. In the first place, his poems are poetry of testimony in which contents of witness are strong, derived from the realistic states and the current thoughts, and it is prophetic poems that complain and set up against a colonial age. The second, his poems are also prophetic poetry that soothe the national anguish and foretell the future of a nation. Lee Yuk-Sa became a national poet and a fighter for national independence because he lived only in the spirit of a classical scholar.

A milestone erected on modern literature by Lee Yuk-Sa is a pride of valuable and precious national literature, and the starting point of national literature.